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 대책TF 출범

-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갑질과 불공정행위 점검
- 이용자, 개발자, 콘텐츠사 피해 방지로 국내 ICT 경쟁력 강화 노력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은 오늘 ‘빅테크 갑질 대책TF’(팀장 한준호 국회의원)를 구성하고 출범시켰다.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국내외 거대 ICT 기업들의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소콘텐츠·자영업자 대상으로 일방적 수수료 인상, 라이더에 갑질 계약 등 각종 불공정행위 유발, ICT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횡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 등 국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수조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정작 인터넷망 사용료는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인앱결제 강제화와 수수료 횡포로 국내 ICT 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빅테크 갑질 대책TF’는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갑질과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이용자와 중소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장간담회 및 현장 체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 사업자, 관련 협단체와 함께 현안 해결 및 입법 개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빅테크 갑질 대책TF’ 구성은 김병욱, 김상희, 김희재 변재일, 유정주, 윤영찬, 이상민, 이용빈, 이원욱, 정필모, 조승래, 한준호(이상 12인, 가나다순) 의원이며, 향후 구성원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끝

2022. 7. 5.**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 대책TF 한준호**